현불 논단

# 신안군 '기독교체험관' 건립 중단하라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신안군청 1월 '기독교체험관 공모**
**예산 95억원 투입… 명백한 '위헌'**
**'천사섬' 부각도 '견강부회'의 행위**

**숙종代 임자도에 中무역선 표류해**
**'기흥대장경' 전래…韓화엄학 발전**
**조선 후기 사상 전반에 영향 미쳐**
**기독교체험관 아닌 해양사 조명을**

신안군은 올해 1월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3월에는 해당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자도의 기독교 역사와 상징성을 드러내는 기독교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체를 선정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불교계는 종교편향 행정을 항의 하였으나 신안군 공식 입장은 예산이 이미 집행되어 사업 중지가 어렵다고 한다.

기독교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종교편향 행정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였다.

신안군청이 기독교체험관을 건립하는 행정은 명백한 위헌이요 범법행위이다. 군청이 나서서 임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비와 군비 95억 원을 들여서 부지 3만 평을 매입하여 기독교체험관을 지어 기독교 체험을 시키는 선교행위를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생뚱맞게 신안군 1025개 섬을 1004섬(천사섬)이라고 각색한 것 역시 견강부회이다.

헌법 20조 2항에서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교 활동과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 교육 행위도 위헌이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국민이 공동으로 제정한 사회규약을 준수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행복이 지키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상의 정치제도이다.

신안군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임자도 섬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에 관계된 지역주민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2021년에 개관한  조희룡미술관은 아주 적합한 사업이다. 조희룡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당대 유명 화가인데 임자도에서 3년 유배생활을 하였다. 임자도 유배지 예술문화를 보존하고 발전하는데 의미가 있다.

〈숙종실록〉에 보면 조선 숙종 7년(1681년), 중국에서 〈가흥대장경〉을 싣고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이 태풍으로 임자도에 표류한 큰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이 대장경판으로 〈황벽판대장경〉을 편찬 간행하기 위하여 싣고 가다가 생긴 일이다. 숭유억불 조선시대에 중국의 불교와 단절된 상황에서 조선후기 불교의 사상적 공백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다.

때마침 백암성총(1631~1700)이 소식을 듣고 바다 위에 떠있는 대장경을 수습하여 순천 징광사에서 10여 년을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당나라 화엄종의 4대조사 징관대사의 〈화엄경수소연의초〉 90권과 〈회현기〉 40권, 〈정토보서〉 1권 등 12종 197권 5000판목을 10여 년에 걸쳐 판각하여 불교강원 교재로 사용했다. 이것은 조선후기 화엄학 불교에 큰 영향을 줬다.

한국불교가 선불교이면서도 화엄경(교종)을 함께 수행하는 선교합일 종교가 되고, 염불(정토보서)까지 수용한 것은 임자도에 표류해 건진 〈가흥대장경〉이 조선불교에 전래된 덕분이다. 이 사건은 한국불교 뿐만 아니라 한국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불교교단과 신안군청은 임자도에 가흥대장경판이 표류해 성종대사가 판각해 간행한 불교경전을 수집하여 전시해야 한다. 신안군청이 종교형평 행정에서 벗어나려면 차라리 '기독교체험관'의 명칭을 '해양종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변경해서 각 종교단체에 의뢰하여 종교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임자도는 한중일 3국 동아시아 해양국가의 길목에 있는 섬인 만큼 바닷길 해양문화·예술의 역사를 연구해 바닷길 유람선 관광사업을 계획해 볼 일이다. 잘못된 오류나 정책은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社 說

# 무산선원, 예술 종교 경계 허무는 공간되길

서울 북한산 자락에 이색 사찰이 문을 열었다. 9월 19일 개원한 '무산선원(霧山禪院)'이다. 선원명에 나타났듯이 이시대 선지식이자 시조시인이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한 前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1932~2018)을 기리는 공간이다.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고즈넉한 계곡 옆 약 200평 공간에는 법당과 작은 강당인 요사채가 놓였다. 작은 암자가 있던 이곳은 무산 스님의 제자 삼조 스님의 원력으로 반년간 리모델링 끝에 현대적이고 파격적으로 재탄생했다. 법당 외벽은 무산 스님이 생전에 남긴 그림이 담겼고 '파도' '아득한 성자' 등 스님의 시조 작품도 친필로 새겨져 있다. 요사채 안에는 스님이 생전 수행했던 가사와 함께 유골함, 주석했던 백담사에서 공수한 돌로 조성된 돌탑이 전시됐다.

입구 쪽 마당에 마련된 불상 옆에는 약 2m 높이의 성모마리아 상도 들어설 예정이다. 종교 구분 없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이는 종교 간 화합을 강조한 무산 스님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다.

'설악산 호랑이'로 불리며 정치권과 문화계, 종교계, 사찰 인근 지역 주민까지 이념과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와 거리낌 없이 인연을 쌓았던 무산 스님.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은 이곳을 다양한 예술과 종교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무산 스님의 정신을 잇기 위해 전통적인 참선이나 기도보다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백담사 인근에 '만해마을'을 만들어 시인과 소설가들이 창작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집필실을 제공했고, 매년 '만해축전'을 통해 문화예술 잔치를 벌였던 무산 스님의 세상을 향한 깊은 뜻이 서울 북한산 자락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 불교명상 공공 기여로 전법포교를

불교문화가 곧 우리 전통문화라는 인식이 불교계에는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임을 감안해보면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 눈을 돌려보면 불교는 사회와 괴리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불교는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종교에 머물러 있다.

이런 와중에 불교명상을 통한 사회기여는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불교상담개발원은 서울시와 함께 '늘봄'이라는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심적으로 고통받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마음쉼프로젝트 중 하나로 먼저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후에는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공공분야 종사자들에게 명상의 기회가 제공된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많은 의료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희생 속에 생명과 안전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사회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교명상은 주목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마음치유까지 확장될 것이다.

불교는 사회 각 분야, 특히 공공분야에서 이웃종교에 비해 열세에 있다. 불자공무원의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명상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좀 더 불교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불교계가 진행해 나갈 공공분야 불교명상은 전법포교의 씨앗이 될 것이다. 공공분야 불교명상 프로젝트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지원 스님의
## 마음처방전

#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루는 수닷타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가장(家長)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수닷타장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소유'라는 행복이다. 부지런하게 일하여 정당하게 벌인 재산을 갖는 일이다. '나는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의 행복이다.

둘째는 누리는 행복이다. 정당하게 얻은 부를 누리면서 공덕을 짓는 것이다. '정직하게 얻은 재산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셋째는 부채를 지고 있지 않은 행복이다.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아무런 부채도 짊어지고 있지 않은 가장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지 않다' 고 하는 생각이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넷째는 비난받지 않는 행복이다. 행동, 말, 생각으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는 가장은 행복하다."

수닷타장자는 일생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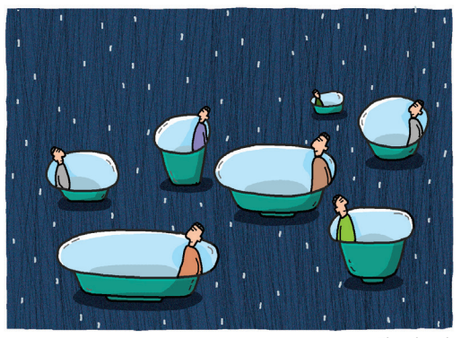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많은 보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존경하여 기원정사를 지어 바쳤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수닷타장자는 자신이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그리고 돈을 벌었다면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써라. 그리고 남을 위해 베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는 '적게 소유하는 삶'을 요구했지만, 일반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경제활동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더 선해질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를 성취하여, 자기에게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면 그것은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며, 돈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돈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부(富)를 성취한다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돈과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오만을 부린다면 그것은 돈으로 자신을 헤치는 것입니다.

돈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더라도 '돈벼락 좀 맞아보고 싶다' 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고통이 몇 배로 커져 돌아온다는 것에 주목하면 그리 바랄 일도 아닙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융불교대학 10기 학인 수시모집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학인 모집
●학장 : 종무원장 도안스님 ●담당 : 교무국장 혜묵스님 ●강주 : 신덕스님
교육과정 초급반, 고급반
조석예불, 종성,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목탁, 요령), 요잡, 천도의식, 49재, 관음시식
접수기간 수시모집
수 업 일 매주 화요일 초급 오후1시 ~ 3시, 고급 3시 ~ 5시
개강일시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장 소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0번길 8 (한국불교태고종충북교구종무원연수원)
모집학과 불교의식(범패)학과, 기초 불교 교리
수 강 료 한달 5만원, 교재비 별도 *상기수업시간과 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반명함사진1매, 입학원서(불교소정양식)1부 (태고종승려는 승적증명서1통, 수계증 사본)
접 수 처 충북교구종무원 043)265-7100 교무국장 010-5338-7701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보살, 재가불자, 일반인 염불의식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가능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원가 상승으로 10월 1일부터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 되오니 주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